

#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방안

글 | 전봉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1

## ●●● 건축아카이브 개념

건축아카이브는 건축박물관, 건축도서관과 함께 건축의 기록을 보존하여 미래의 건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3대 기록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아카이브는 현재와 미래의 건축가와 건축학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위하여 접근해야하는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건축이 단순히 최종적인 결과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건축아카이브는 수집 대상 자료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건축가 중심의 아카이브와 건축물이나 도시건축환경 중심의 아카이브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가 아카이브는 한 건축가가 일정 기간 활동하였던 모든 기록 즉, 최종적인 건축도면과 모형 이외에도 초기의 스케치와 디자인의 발달 과정에서 생긴 중간 성과물, 건축주와의 면담 기록, 행정 처리와 관련된 서류, 언론에 소개된 내용, 그 외에 개인의 생애사적 기록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는 창조적인 개인으로서 건축가의 일상생활 모두가 그의 작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 아카이브는 다른 아카이브와 비교할 때 수집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규격과 형식이 일정하지 않아서 계획과 운영에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건축물 아카이브나 도시건축 아카이브는 단위 건축물이나 건축적 사건, 일정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건축물 집단 또는 특정한 지역의 도시건축환경 일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개인이나 조직, 기관을 단위로 하는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변

- 01 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축도면들. 건축도면이 건축아카이브에 소장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평탄화 등의 보존처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02 뮌헨의 바이에른건축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문짝들 - 17세기의 것부터 각 시기별로 소장되어 있다.
- 03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DAM)에 소장되어 있는 건축모형들



화하는 도시건축 환경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적 실체로 인식하고 그의 변화 과정을 총합적으로 기록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는 구체적인 건축물과 건축부재 등의 실물 자료,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과 같이 공간적 성격을 띤 자료 외에도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통계와 생활 실태를 담은 비공간적 성격의 것들도 포함된다.

다만, 전체이건 부분이건 건축물의 실물을 수집하는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건축물 아카이브는 건축박물관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더욱이 대부분의 건축박물관은 건축도면과 건축가의 기타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건축아카이브 역시 자체 내에 전시실을 두어 중요한 도면과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NAI)의 경우를 보면, 건축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시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대중 지향적인 건축박물관의 속성도 겸하고 있다. 또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MOMA)의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기획전시를 통하여 새로운 건축적 담론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한 야외건축박물관의 예와 같이 건축물 자체를 전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존재 양상을 갖는다. 세계박람회와 야외박물관은 건축물의 실물을 전시, 소장한다는 면에서 건축박물관의 초기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카이브적 속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아카이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기록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지어지며, 건축도서관이나 건축박물관은 건축과 관련한 학술적 성과물의 수집과 열람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또 아카이브가 수집과 정리, 보관을 통하여 후대의 연구와 창작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비하여, 박물관과 도서관은 전시와 열람을 통한 당대의 교육과 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작업의 성격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은 아카이브를 그 내부에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박물관과 아카이브 역시 함께 운영되고 있다.

## ● ● 건축아카이브의 탄생과 발전

원래 아카이브(archive)는 공공문서, 시청 혹은 집행관의 관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케이온(arkhe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기원은 중요한 행정 문서의 보존소에서 비롯하였다. 고대의 아카이브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국의 당안관(檔案館)에서 이미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한 기관의 설립과 대중적 접근을 지원하는 근대 아카이브의 제도가 확립된 것은 프랑스 혁명 기간 중인 1789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립 아카이브(Archives nationales)에서 시작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축아카이브의 역사는 정부 기록관의 건축행정 도서부를 기원으로도 삼을 수 있다. 그것은 건축적 개념을 구상하고 발전시키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써 건축가가 그린 건축도면은 건축아카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수집대상이 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도면의 경우, 자료의 형식과 성격이 전통적인 정부 문서와 유사하고 수집과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근대에 등장한 대중적 건축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육 기간 중에 행한 일련의 성과물을 보관하였고,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그 대학과 연고가 있는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건축가의 직접적인 생산품을 보존하며 그것이 다음 세대의 건축가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건축학교의 건축 작품 소장은 본격적인 건축아카이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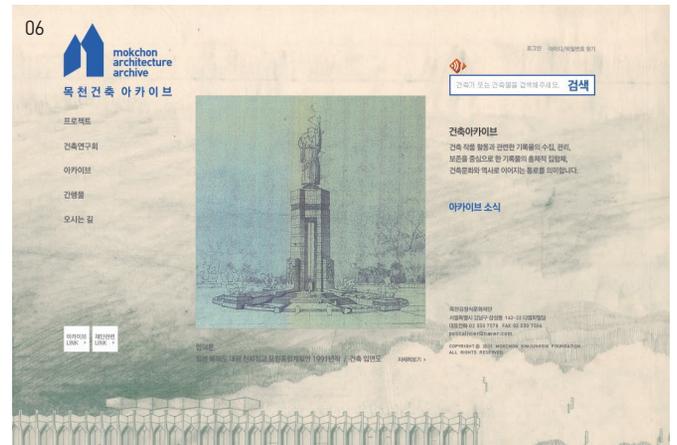
이렇게 탄생한 건축아카이브는 현재 정부기관 이외에도 대학, 종교기관과 공공협회, 나아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수집 자료 역시 전통적인 건축도면에 한정되지 않고 기관과 개인의 각종 역사 기록물, 설계 과정에서의 다양한 생산물, 연구자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건축아카이브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프랜시스 로브 도서관 그로피우스 컬렉션(Gropius Collection)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건축 아카이브의 특별 컬렉션인 루이스 칸 컬렉션(Louis Kahn Collection) 등과 같이 그 학교에 교수나 학생으로 관계하였던 유명 건축가의 컬렉션을 보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와,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소(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ècle)나 네덜란드건축협회(NAI), 영국의 왕립건축협회(RIBA)와 같이 국가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유럽의 건축아카이브에서도 국가와 기관의 관계 설정 방식은 기관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들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루이스 칸 컬렉션의 경우 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면서 활발한 건축 활동을 한 루이스 칸의 유산을 1978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구입하여 이 대학에 영구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프랑스 20세기건축기록소의 경우, 국립아카이브에서 건축기록문서를 대여 받고 프랑스 건축협회(IFA)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 기구의 성격을 띤다. 2004년에는 법령에 의해, 프랑스건축협회, 문화유산박물관, 그리고 샤이요(Chaillot) 학교 등의 문

- 04 네덜란드건축협회(NAI)의 건축도면 수장고
- 05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 06 한국 1세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목천건축 아카이브'





화유산의 보존·연구·교육 등에 관련된 3개 기관이 건축 및 문화유산 센터(Cit'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20세기건축기록소는 건축주물모형(Cast Model)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박물관과 통합되어 중세 이후의 모든 시기에 걸친 건축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아카이브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3년 설립된 네덜란드건축협회(NAI)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 차원의 건축 아카이브의 사례로 꼽힌다. 네덜란드의 건축가를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하며, 자료보관용 선반의 길이가 18k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사실상 1800년대 이래의 유명한 네덜란드 건축가의 컬렉션을 모두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에서는 규모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건축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0여 곳의 건축아카이브가 있을 정도이다. 결국 건축아카이브는 일반적인 아카이브에 비하여 자료의 출처가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집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와 구성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카이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보유량보다 정보의 질에 있다.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기준으로 는 미적인 가치, 기록물이 다루는 영역, 보존 상태, 희귀성, 기록된 대상 또는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수집한 사람의 중요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축아카이브의 상황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사립의 건축아카이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 6월 '목천건축 아카이브'가 개소하여 이제 은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들에 대한 구술 채록작업과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면·도구·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도 건축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현대미술관은 작년 3월 타계한 건축가 정기용의 많은 스케치와 일지, 사진과 동영상 등의 유품을 기증받은 것을 계기로 하였고, 서울역사박물관 역시 작고한 건축가 김정수와 정인국의 유품을 기증받은 것을 계기로 기존 부서 내에 건축아카이브의 담당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공간도시연구소의 아카이브 관련 작업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건립예정으로 있는 (가칭)건축도시박물관의 개관과 향후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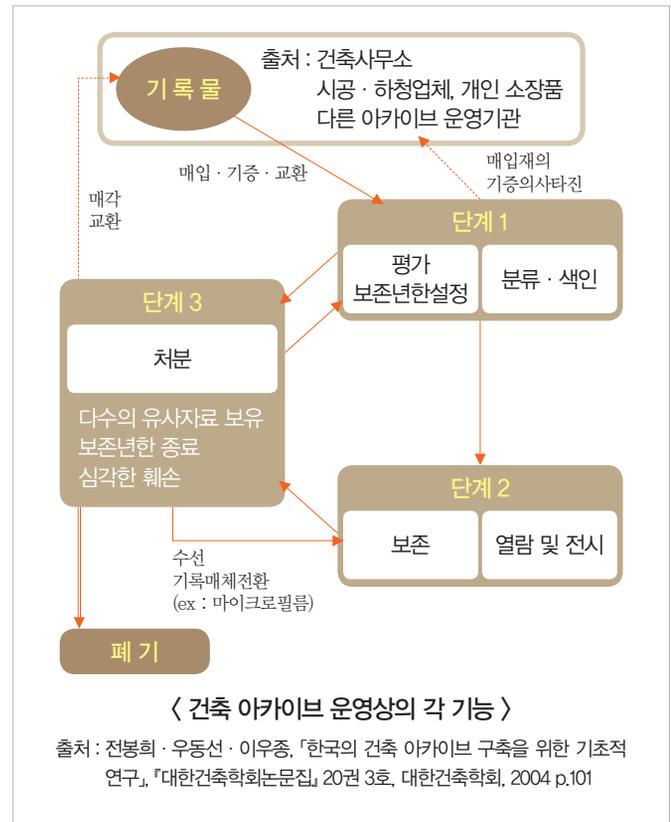
이외에 건축아카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 범위가 되는 도면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8년 이래 국가기록원에서는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생산된 근대 건축도면과 그에 대한 해제를 해제집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근대 자료 집합소인 규장각과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도면 컬렉션에 대해서도 각각 그 해제작업이 완료되어 해제집

의 출간과 도면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도면 아카이브의 가장 이른 선례가 되고 있다. 나아가, 건축사무소가 자신들의 작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각급의 행정기관이 행정서류로서 보관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건축서류 등은 앞으로 여러 형식의 아카이브 구축에 일차 수집대상이 될 것이다.

### ● ● ● 건축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

건축 관련 자료의 소장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소유자 측(소비자 측)과 설계자/시공자 측(생산자 측)으로 이분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자료의 출처로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정부 또는 그 외의 각종 조직들, 건축 사무소, 건설회사 혹은 구조사무실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acquisition)’은 건축아카이브의 구성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건축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자원, 관리 인력, 수장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대상의 선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수집의 주된 원칙은 명확한 목적성, 완벽한 소장품 체계의 수립, 과학적 계획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발생하는 시점은, 건물의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건축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될 때, 건축가가 은퇴 혹은 사망하여 소장하고 있던 도면을 처리할 때가 된다. 최종 도면의 경우 소장처가 복수로 있고, 따라서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지만 최종 설계안 완성 전에 생산되는 다양한 건축도면과 서류, 스케치, 모형 등은 건축가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건축아카이브의 가장 큰 자료 수집 대상은 건축가가 된다.

이렇게 수집된 건축 관련 기록물을 원래 작성된 목적과 성격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면 크게 프로젝트 관련 자료철, 사진이나 모델 등의 시각적 기록물, 그 외 사원 명부나 장부, 일반 서신 등 사무 관련 자료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수집한 후에는 이들의 출처, 다루는 내용, 재질, 크기, 현재 상태, 현재 보관 위치 등을 ‘조사(survey)’하여 기록해야 하며, 관리와 이들 자료를 외부의 연구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색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물의 ‘정리(arrangement)’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



선 출처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록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조직되어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출처에 따라 나눈 후 다시 프로젝트별, 용도별, 시간순 등으로 분류를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개개의 건축 관련 기록물은 유용한 정보의 보고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건물의 특정 부분, 어떤 프로젝트의 일부 과정만을 반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건물과 프로젝트 진행의 전반에 걸쳐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특정시대 혹은 특정 분야의 건축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특정 주제의 건축 관련 기록물들이 일정한 체계와 기준에 따라 수집·정리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처분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건축 아카이브의 기록물들은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구성된 것들이 많다. 또 각 기록물은 재료에 따라서 ‘보존(conservation)’에 가장 알맞은 환경 조건이 제각각이다. 적정한 온도·습도 조절,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보관실은 건축 아카이브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이며, 건



축아카이브의 운영 목적에 맞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조건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자료의 보존은 보유 기록물이 늘어날수록 아카이브 운영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게 되는 요소로, 때로는 기록물 중 일부를 폐기·매각·교환하여 처분(disposal)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료의 가치에 따라, 아카이브의 목적에 따라, 유사 자료의 수량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자료의 역사적, 과학적 가치가 반드시 현재의 시각으로만 판단될 문제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임직원의 독단이 아닌 운영 주체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에는 외부인을 포함하는 복수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기증자나 구입에 기여한 사람의 의견을 가능한 한 참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의 공개 방식이다. 건축아카이브는 일반적인 아카이브에 비하여 자료의 출처가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료의 양과 이에 따른 수장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와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의 두 가지별로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건축아카이브의 경우 기본적인 수집 대상인 건축도면이 최근에는 대부분 디지털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의 경우는 원천자료의 완전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디지털로 생성된 자료는 원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천자료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경우라도 반드시 출력 등의 방식으로 실물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

● 필자소개

1992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부터 같은 대학에서 건축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건축사가 중심 연구 영역이며, 건축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소장의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구축작업과 규장각 소장 도면 컬렉션에 대한 해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건축부재 아카이브의 개설과 목천건축아카이브의 원로 건축가 구술채록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